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대회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지난 시기 당세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들이 옹계 총화되었다고 보면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기아래 더욱 굳게 단결되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혁명유산들을 굳건히 지켜내고 더욱 빛내임으로써 우리는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강력한 밀천과 열쇠를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은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장거이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린 특대사변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혁명의 참모부이며 항도적력량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본성이며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룡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붉은 기폭과 이 땅위에 마련된 사회주의전취물들마다에는 수령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믿고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정으로 받들어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전투적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당세포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거점이고 군중속에 뻗어있는 당의 말단신경이며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입니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일이 없습니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되기때문에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있는 다음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회로 세포비서들의 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게 하자면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된 동지, 전우로 준비시키는것입니다.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결정적담보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를 말합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원들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

에 대한 투철한 신념,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렬한 혁명투사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의 열혈투사들은 모든 당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입니다. 당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차광수, 김혁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당의 1세대당원들처럼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며 일심단결의 대를 꿰뚫어 이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세포안에 높은 당조직관념에 기초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원들을 당조직생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한 조직성, 규율성을 지닌 쇄소리나 혁명가로 키워야 합니다.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그들에게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짙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궂꿎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당세포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인민을 자기 부모처처럼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소속되어있는 당세포에서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준비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당생활지도와 장악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위험한 독소로 보시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당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실험을 바치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조직들이 당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앨때 대하여 강조하면 사상투쟁회의를 열고 몇몇 일군들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일군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거있게 밀고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단순히 일군들의 성격상문제나 사업작풍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상의 문제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일군들이 군중의 신망을 잃고 정치적생명에 오점을 남기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당의 권위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지며 종당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됩니다.

적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처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원에 돌아난 독조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만 할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다 떨쳐나서야 할 전당적인 사업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자면 일군들과 세포비서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중앙당과 도, 시, 군당, 초급당조직들은 물론 당세포들에서도 세도,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원칙적으로 강도높이 벌려야 합니다.

사업에서는 직급이 있어도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이 있을수 없으며 당안에서는 이중규율이 허용될수 없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강하게 세우고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여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고 참된 인민의 총복으로 준비해나가기도록 동지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의 요구성과 관료주의를 정확히 가려보고 세도와 관료주의가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 해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투쟁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세포들에서 자기 세포에 소속되지 않은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데 대하여서도 외면하지 말고 적극 투쟁하며 심각한 문제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상급당조직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1 면 에서 계속)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이 우리 당과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이어지게 하는것입니다.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대중적지반이며 우리 당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당이 군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으면 대중적지반을 잃게 되고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됩니다.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자고 해도 그렇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해도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믿음을 확고히 틀어쥐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에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간부자녀들이 아니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의 자녀들을 기본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였으며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라고 해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은 차별하지 말고 대표로 추천하게 하였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닦아주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풀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천겁만겁의 성세를 쌓아야 합니다.

모든 당세포들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 팽폭정치를 받들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사람들이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판가리결전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당과 혁명, 조국을 위하여 사신의 고비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당세포가 군중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하려면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바로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성격에 따라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것도 서로 다릅니다.

당세포에서는 천길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아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명언을 지침으로 삼고 사람들의 진속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사람평가를 편견없이 바로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군중교양을 하는데서 집체교양에만 매달리지 말고 개별교양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사업, 군중과의 사업은 그 어떤 공식이나 유일 처방을 가지고는 할수 없습니다.

각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교양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사 당의 사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저 때버릴때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 군중이 점점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당세포들은 군중에게 당의 사상을 주입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당의 사상을 받아들일도록 품을 들여 인내성있게 교양해야 합니다.

군중을 전취하는데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믿음에는 충정이 따르지만 불신에는 배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서 파오를 범할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수도 있습니다.

설사 엄중한 파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플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사신들로 키울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세포들이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이 되고 일심단결의 성새를 만드는 성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여지고있는 오늘 당세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 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각급 당조직들, 특히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당세포는 살아 있는 당세포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오늘 전당에 당의 유일적정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출해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데 당의 유일적정도체계가 섰는가 하는것은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전달이나 하고 그것을 관철하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당에서 아무리 옳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고 언제 가도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정책이 인민생활에서 은이 날 때까지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이 당의 권위를 보장하자면 책도 많이 써내고 선전도 널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의 정도적권위는 글이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덕을 인민들이 보게 되어야 보장되게 됩니다.

당세포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을 현실로 꽃피우는 밀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도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가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가 되자면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장군님의 애국주의로 대중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칠 때 우리에게 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 땅의 돌 하나, 풀 한포기도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넉과 육신을 깡그리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던 1970년대의 투쟁정신을 부활시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의 창조자는 웅당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선봉투사들인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 일군들과 당원들처럼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앞장에서 이끌며 생존길을 헤쳐나가는 기관차가 되고 척후병이 되면 모든 초소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나라의 전반사업이 잘되게 될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원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이 다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핵심군중을 발동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불러일으키며 한 단위의 혁신이 다른 단위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

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청년들과의 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위투사들입니다.

전후 강선의 로앞에서 애국의 땀을 바쳐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지퍼올린것도 청년들이였고 해주-하성간 철길공사장에서 기적을 창조한것도 청년들이였습니다.

당세포에서는 새 세대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처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시대를 진감하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떠나는 부강조국건설과 그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고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비결도, 생산장성의 열쇠도 과학기술에서 찾고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당적 지도를 짜고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과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자면 세포비서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세포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의 척후병입니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당세포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은 그만큼 빨리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당세포비서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자면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되어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세포비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합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비서들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한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세포비서가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되자면 누구나 스스로 찾아와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싶어할 정도로 심장이 뜨겁고 도량이 넓어야 합니다.

세포비서의 마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딱 차있어야 합니다.

세포비서는 자기 집일보다 동지들과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자식들을 위하여서는 피와 살도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어머니처럼 집단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은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마음속으로 우리르며 어머니다운 정겨운 시선과 밝은 인상, 레철바른 언행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세포비서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집단안에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칠수 있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혁명과업수행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이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보다 어깨를 먼저 들이밀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이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됩니다.

강원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당세포비서였던 김금수동무와 같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기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세포비서입니다.

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라고 호소만 하지 말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투쟁과 위훈에로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하느라 남보다 휴식도 적게 하고 잠도 좀 못 잘수 있지만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말고 락으로 여겨야 합니다.

당세포비서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이 아무리 각오가 높고 열성이 있어도 수준이 낮으면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할수 없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도 없습니다.

세포비서들은 당권이나 간판을 가지고 자기의 발언권을 세우려고 할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업상권위를 세우고 대중의 신망을 얻어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누구보다 환히 꿰들여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와 당사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 당의 방침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은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당생활조직과 지도, 당장성사업을 비롯한 세포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실무적 문제들을 다 알고있어야 하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정세에도 밝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옹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움직일 줄 아는것은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세포비서들은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지녀야 하며 군중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선동연설도 할줄 아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전당에 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건설하며 당원들속에서 신망이 높고 실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세포비서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세포비서들에게 당문헌과 당의 방침을 제때에 전달침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상급당의 결정, 지시를 정상적으로 알려주며 사업방향을 똑똑히 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하부지도에서 일군들이 당세포에 직접 들어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면서 세포비서들을 도와주고 배워줄때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세포비서의 날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고 세포비서들을 위한 강습과 경험토론회같은것도 널리 조직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이번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강습을 실시 세포비서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게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당세포비서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가 매우 무겁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모든 당세포비서들과 당일군들이 주체의 당기를 자신들이 틀어쥐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도춘,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홍승무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정황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미국의 내노라 하는 전문기관들도 인정하였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결코 칭포하고 도발적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적대세력의 전례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국제



적인 관례이상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우정 정세가 비교적 온화한 때를 골라 발사시기를 택하는 등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입증해보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의 위성발사를 또 하나의 반공화국압살의 계기로 만들려고 작정한 적대세력은 막무가내로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섰다.

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탄압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버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여러 유관측들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과 사태의 격화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스스로 인정하다 싫어 그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오직 제압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철리가 다시금 확증되였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가 있을수 없다는것도 명백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협의회에서 이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성명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와 같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

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 4 차 세 포 비 서 대 회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는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는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열리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과 중앙과 도의 당책임일군들, 여러 부문의 모범적인 당세포비서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강원도인민보안국 영웅폭발물처리대 당세포비서 신철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산하 연구소 초급당비서 권룡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수직장 당세포

비서 한주명, 덕성파수농장 당세포비서 박강일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을 조선로동당을 만드는 역적불변의 초석으로, 당정책관철의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2일 회의에서는 먼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 당세포비서 조정숙, 체육성 당세포비서 윤용복, 함경북도인민병원 당세포비서 윤인덕, 신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장명석,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당세포비서 송경찬, 부모바다가양식사업소 생산4직장 당세포비서 오재환이 토론하였다.

이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4직장 당세포비서 정우영, 평양방직기계공장 광구직장 부문당비서 염영길, 김정숙피복공장 3직장 당세포비서 김복실, 순천

세멘트련합기업소 축로중대 당세포비서 리종길,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운광사업소 7운광직장 당세포비서 립학춘, 화평군 부남청년발전소 당세포비서 리형삼, 문덕군 룡오협동농장 부문당비서 현태훈,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당세포비서 박종덕, 연안군 오현리당 비서 박근모, 안변군 비산협동농장 당세포비서 장철수,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당세포비서 김주영, 풍서림산사업소 설립령작업소 당세포비서 리경화, 경상유치원 당세포비서 김순녀, 로동신문사 당세포비서 정광복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백두산전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고 지난 기간 당사업의 성과와 경험, 결함들을 분석총화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당사업

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조선로동당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확고부동한 불패의 통일체로, 인민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강화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 할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열광적으로 화답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만세》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우주강국의 존엄

공화국은 우주강국이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100% 국산화된 공화국의 《광명성-3》호 2호기 위성발사성공으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됐다.

그런데 당초부터 북조선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발사》,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개발행사에 대해 알가알부한 미국은 메사하고 심사가 뒤를린 나머지 끝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 기구를 동용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모든 나라의 평등적, 자주적권리이며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정당당한 주권행사다.

유엔이 생긴 이래 세계적으로 위성발사가 유리를 물고있는 오늘날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 어떤 국가의 위성발사를 문제삼은적이 단 한번도 없다.

유독 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한다.

이것은 리념과 제도를 달리하는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과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발로이고 평화적 환경속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의 강성국가건설

을 저해하는 또 한차례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다.

철두철미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청난 유린이고 도전행위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력사의 정의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보여주는 것은 인류사가 보여주는 진리이고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공화국은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해야 할것을 하

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 밑에 외세의 그치지 않는 포위와 봉쇄, 제재를 물리치는 장기간의 대결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자취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즐기차게 이어온 조선을 동경해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지프는 조선을 자주성이 강하기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말한적이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언명하신것처럼 힘의 론리에 기초한 강권과 자취이 날로 우심해지고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선군은

자주성이 강하기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말한적이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언명하신것처럼 힘의 론리에 기초한 강권과 자취이 날로 우심해지고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선군은

관 자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주성을 지키는 길이 애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적힘을 키우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해보겠다는것은 도적에게 집을 통째로 내맡기고 벌락부자가 될 허황한 꿈을 꾸는것이나 같다고 하셨다.

그이의 선군령도 따라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자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놓았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그보다 더 귀중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해 도발하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맞받아나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며

오직 장군님식대로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비애에 젖어있던 주제 100(2011)년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추억하시며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었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일동을 경각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것을 엄밀히 단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며 우리의 령도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지난해 8월 중순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7IP의 작은 무선을 타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와 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

그날 이기께서 무도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감시소에 오르시여 방어의 방어전역을 바라보시던 원수님께서서는 무도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

감나무중대에서 찍은 기념사진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널리 알려진 감나무중대를 찾으신것은 지난해 삼복철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감나무중대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국수호의 성세, 방패가 되라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가 담겨져있고 한전호에서 생사교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서 맺어진 혈연의 늑대가 얼마나 두렵고 순결한것인가를 보여준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본사기자



우주강국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각계층 근로자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희망찬 새해의 아침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내신 첫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가 선택한 길, 나아가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 그 민족의 운명,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망국으로 쇠민지노예의 처지에 있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때로부터 운명개척의 진로를 찾아 나아가게 되었다.

수난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에게 통돌파와 같은 주체사상으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절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나

가야 하겠다고 마음굳힌 수령님께서서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육중에서 무르익힌 사상과 립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명저를 통해 밝히시여 사대와 교조, 혼란과 좌절로 얼룩진 민족해방투쟁사에 종지부를 찍으시었다.

철두철미 자주사상으로 일관된 이 력사의 선언은 사소한 우여곡절도 없이 민족의

고 하시었다.

어머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개척하신 자주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 어져왔다.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주체이고 자주이다.

주체사상과 자주정치를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

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혈전을 벌리자.

진명학교의 소박한 교실 그 남동불빛아래서 우렁우렁하게 웨치던 그날의 수령님의 모습으로, 자주의 길, 선군의 한길 위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놓으시고 수호자의 한평생을 수놓아오신 장군님의 모습으로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이 땅위에 번영하는 자주의 나라, 불패의 강국을 세워주시는 대원수님들의 업적과 위업을 단 한치의 편차나 오 위도를 없이 빛나게 이어나가 시려는 그이의 결심과 의지가 퍼력된 력사의 선언앞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광명성의 천만리를 확신하고있는 것이다.

강성국가건설뿐 아니라 전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통일성업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실현 하실 절세의 애국자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보았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에도 민족이 나아가길 진로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이 땅에서는 자주로 존엄높은 부강번영하는 나라, 통일된 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래일을 확신한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전체 인민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길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령도자의 뜻과 결심이 자자구구에 담겨져있는 신년사이다. 《우주를 정복한 그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가 주목을 끈다. 그리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은 세계지평을 파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며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쫓겨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행력이 더 많이 차례차례 할뿐 아니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

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놓아야 한다는것도 주목할만 한 내용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는 애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실천과 현실을 낚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벽두부터 생산현장마다에서 동심이 높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나래가 들쭉했다.

봉천관광을 비롯한 각지 관광에서 석탄산이 높아지고 철광생산지 무산의 철산봉에서 퇴성만양 20만 산대발파음이 장쾌히 울리고 걸터에서도 광물생산량이 전례없이 증가했다. 눈덮인 대지에서는 농민들의 일손에 불이 달렸다.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애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휘황한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다. 인민생활상

을 도모하는 생산지들과 체육 및 문화, 봉사기지를,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보다 새롭게 현대화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변이 있는 지난해의 현실에서 더없는 자부름 느끼고있는 인민들이다. 막강한 국력의 결과물이자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운반로케트의 발사와 계단분리로부터 위성의 궤도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소한 부추점도 없이 완전성공시키는 패승을 이룩한 사면과 눈에 띄는 비약을 통해서도 앞날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이 땅에는 더 밝고 광활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린은하

불변의 진로

해방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었다.

언제인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적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었으며 혁명파 건설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이후 추위를 무릅쓰고 공사현장을 찾으시여 건설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는 그이의 심신에는 왕성한 정력과 담대한 기개만이 차남치고있었다.

2009년 1월 15일에 있는 일이다.

그날은 평하 15.1°C를 기록하는 맵쌀 날이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조국의 강

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신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그 어떤 어려운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진로를 뚜렷히 밝혀주는 해불이고 동태였다.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고수하시고 계승발전시키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절대불변의 진로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었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합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민주권의 숭고한 뜻을 정치적신앙으로 여겨오신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좌우명을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키로 잡으시고 미래를 위한 항로를 불변의 진로로 잡아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은 온 겨레의 어머니이시다.

민이 한목소리로 절절히 아뢰었던 소원은 《장군님, 찬눈길 건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럴 때면 우리가 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만 우리 인민의 강행군이 늦어지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이 늦어지게 된다고 하시며 또다시 신들레를 조이시던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의 인민사랑은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이어지고있다. 이기께서는 이민주권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새기시고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올해부터는 인민생활향상의 지침을 밝혀주시고 애민헌신의 열과 정을 다하고계신다.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으로 안겨온다.

1월의 날씨는 차고 눈바람은 세차도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은 불보다 뜨거웠고 그 추억은 서리꽃 피는 2월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뜨거운 추억

지난 1월 레년에 없는 강추위가 닥쳐왔고 폭설이 내렸다.

대소한의 추위와 강산을 뒤덮는 폭설은 이 나라 인민에게 못 잊을 추억을 떠올렸다.

그 추억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쉬임없는 애국에헌신의 강행군길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며 뜨거운 눈물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박달나 무도 열러진다는 1월의 추위도, 눈바람 세찬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2009년 1월 5일 새해벽두부터 빨치산강행군길에 오르신 이기께서는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년중 제일 추운 소한산에 오신 장군님께 그 지방 사람들은 오늘은 소한이라고 말씀드리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신 장군님께서서는 난 소한인줄 모르고 왔다고, 오늘이 소한이라누만 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살을 에

이후 추위를 무릅쓰고 공사현장을 찾으시여 건설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는 그이의 심신에는 왕성한 정력과 담대한 기개만이 차남치고있었다.

2009년 1월 15일에 있는 일이다.

그날은 평하 15.1°C를 기록하는 맵쌀 날이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조국의 강

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방선초소와 공장, 건설장과 농촌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은 계속되었다.

그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공장을 찾으시는데 대해 눈시를 적시는 공장사들에게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날씨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현장에 돌아보시었다. 오래동안 공장에 계시는 그이를 넘겨하는 일군들의 권유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혼연히 옷

으며 동무들이 내가 건강하진 않겠냐고 하는데 고맙다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동무들이 건강하여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고무격려하는것으로 현지지도를 마치시었다. 이렇게 이어진 장군님의 강행군길이었었고 날과 날이였다.

1월의 그 길, 그 나날에는 산촌의 새벽공기가 얼마나

이민주권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새기시고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올해부터는 인민생활향상의 지침을 밝혀주시고 애민헌신의 열과 정을 다하고계신다.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으로 안겨온다.

1월의 날씨는 차고 눈바람은 세차도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은 불보다 뜨거웠고 그 추억은 서리꽃 피는 2월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체육열풍이 세차게

적인 방조를 강화할뿐 아니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훌륭한 경기성가로 주제 조선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게 해준다는 강요하시었다. 그날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생활과 국가발전에서 체육열풍을 증시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에서는 체육열풍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기록이 많아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제 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결승경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날 평양시민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신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선수들과 감독, 심판원들을 만나시고 경기성과를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며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국가

체육열풍이 세차게

체육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함께 강한 자상지와 용감성을 키워주며 건강함으로 오래 살려주는 념원을 실현할수 있게 해준다. 그뿐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게 하여주며 사람들에게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생활과 국가발전에서 체육열풍을 증시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에서는 체육열풍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기록이 많아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제 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결승경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날 평양시민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신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선수들과 감독, 심판원들을 만나시고 경기성과를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며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국가

와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 건강한 몸으로 자기 사적 훌륭한 승마구락부로 개진하도록 하고 현지를 밟아보시며 앞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긴 근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신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관심속에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바람이 날을 따라 세차게 일고 국제체육무대에서 조국의 명예를 과시하며 체육강국의 미래를 과시하며 사람들이 많고있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보시며 앞으로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라고 고무 격려하시었다. 인민군인들, 기마훈련장들 인민들이 리용할 승마구락부로 개진하도록 하고 현지를 밟아보시며 앞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긴 근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신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관심속에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바람이 날을 따라 세차게 일고 국제체육무대에서 조국의 명예를 과시하며 체육강국의 미래를 과시하며 사람들이 많고있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체육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위원회, 성, 중앙기밀군 탁구경기 진행

공화국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할것이다

평화적건설을 가로막아나선 엄중한 횡포

우주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며 평화적위성발사권리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질수 있는 보편적권리이다.

더우기 우주과학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에 와서 지난 시기처럼 군사분야에만 쓰이는것이 아니라 기상관측, 자연부원탐사 등 복합적으로 리용되면서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과 농업생산 등 국력강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이런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을 쏘올리려 하고 있다.

이번에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갖은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인공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은 세인을 놀래우는 사변으로서 국제사회가 경탄하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배아파하면서

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 것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비렬한 《제재결의》를 조작한 목적이 단순히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번 《제재결의》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 《가장 강도 높은 대응조치》, 《그물망식 제재》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다.

공화국의 해외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해당 나라들과의 현금거래를 막아 《북의 돈줄》을 모두 틀어막는다는 조항과 2중용도의 통제목표가 아닌 상용물품도 해당 나라가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입전반을 통제할수 있다는 그 무슨 《개치율》 방시파위가 도입된 《제재결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뻔하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에에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는 전쟁억력강화와 함께 경제건설을 진행해왔다. 그 나날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냈고 오늘에 와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위력한 전쟁억력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에 공화국은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길에 과감히 밀쳐나섰다. 공화국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일 부 자재와 원료, 자금의 류통까지 차단하겠다는것은 결국 공화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 인민생활향상에 가해 줄 조종인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나아가 핵무기

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극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철적인 거부감과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겠다는 미국의 대조적대시전략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제재》소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이 내세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지어 민족의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게 되었다.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지키는것은 단순히 우주개발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판가리결정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로 꽂았어 걸어나가겠다는가 하는 력사의 물음앞에 공화국의 대답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공화국이 택한 길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력이 약하면 강자에게 먹히고만다.

오늘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공위성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쏘아올리는 최첨단과학기술,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힘에는 힘이 다르기 마련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탄압하게 유린하며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다 못해 평화적건설을 가로막으며 우리 민족의 생존권마저 헤치려고 물리적인 걸림돌을 마련한 이상 공화국도 역시 물리적방법으로 그것을 제거할 것이다.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취하는 강력한 물리적대응조치들은 천만번 정당하다.

본사기자 김웅철

정의는 오직 자기 힘으로

지난 1월 22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한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로 문제시하는 이른바 《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한것은 부정의와 자기기만,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물건대 이 《제재결의안》에 빼앗아 손을 든 나라들의 위성들은 한도 미싸일기술을 리용한 운반로켓트를 리용하지 않고 손으로 던져서 우주공간에 올렸는가.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비평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이번 《결의안》 채택내용은 미국의 지휘에 놓이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비극적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여러 유관국들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

과 사래의 격화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스스로 인정하다싶이 그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자기의 자주권을 오직 제법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있다.

오늘도 세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작은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돌이켜보자.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개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파괴》였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 전역을 침략처럼 살상이 훑었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라크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에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반미기운이 강한 리비아에 대해서도 온갖 유혹과 얼림수를 다 써가며 무장해제를 하였다. 위력한 전쟁억력력을 스스로 포기한 리비아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에 미국주도하의 서방연합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자기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

한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횡포와 전횡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히는 비극적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약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정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면 오직 자기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한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적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화국은 이미 세계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전면대결전에서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공화국이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바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바로 이것이 유엔안보리사 회도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침략과 전횡을 마구 일삼는 미국에 대항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제재》가 불러올것은 전쟁뿐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하루강이지 범부서준출 모르고 분별없이 늘어내고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돌격대가 되어 악질적으로 날뛰고있다.

외세와 결탁하여 유엔 《결의》 조작실현에 앞장선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은 가장 추악한 반민족적행위로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다.

북의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는 민족의 존엄과 위엄을 만천하에 떨친 반민족적행위로 특기할 대경사이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주권행위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주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위반》이니, 《제재》니 하고 요란스레 떠들고있다. 게다가

가 남조선보수당국까지 주재 넘겨 《독자적인 추가제재조치》를 운운하면서 미일상권들의 앞잡이가 되어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광명성-3》호 2호기발사에 한사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화국의 존엄과 위성을 깎아내리고 끝수에 배긴 저들의 복침공세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리명박보수패당과 같이 극도의 적대의식에 물젖어 동족대결과 복침전쟁책동에 환장한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자들이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 숨쉬고있는 한 북남관계발전도, 나라의 통일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이 력사적교훈이다.

지금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고 발악하는 리명박보수 《정권》에 대한 겨레의

중오와 규탄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유엔 《결의》 자체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정이자 도발》이다. 지경도록 반복되는 《제재》소동을 당장 길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이번에 세상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는 유엔 《결의》를 고안해낸것은 《경쟁이들의 졸렬한 행위, 더이상 위성발사를 하지 말아달라》하는 애걸》이라고 비난조소하고있다.

침략자들이 무모한 도발을 일으킨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대담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제재》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언제나 빈말을 모르는 공화국의 정의의 선언앞에서 남조선보수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윤현주

얼마전 공화국의 자주적인 위성발사를 놓고 감히 《제재》요 뉘오 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 는것이 나왔다.

이번에 있는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놓고 세계의 량심 있는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좌사회의 전문가들도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해를 넘기며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 위성발사》로, 유엔 《결의》에 대한 《탄압한 파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모독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드디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그런데 가관은 이러한 미국의 거드름이 붙어 기생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가증스러운 망동이다.

지난해 12월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이 위성발사를 진행하자마자 미친게 물 본듯 헤덕이며 어처구니없이 놀아났다.

그들은 저저마끔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하며 버럭적고야했는가 하면 《강력한 대응》과 《고강도제재》를 운운하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뛰어다녔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부끄러움줄도 모르고 미국과 일본, 주변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유엔에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 는것이 나왔다.》

이런데 유엔의 위성발사를 놓고 세계의 량심 있는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좌사회의 전문가들도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과 함께 《독자적인 추가제재조치》라는것을 운운하며 발광한것도 남조선 당국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가 조작되자마자 《환영》이니, 《결의준수》니 하고 떠들 어낸것도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다.

실로 민족의 대경사를 놓고 함께 기뻐해야 할 동족으로서 이렇게까지 추하고 역경적 놀아내는 무리는 리명박보수당국밖에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집단의 이번 동족대결책동에는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세우며 총과산에 직면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해보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원인은 그 누구의 《핵문제》가 아니라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동족을 압살하기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전쟁책

동에 있다.

지난 5년간 리명박 《정권》의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불기운이 짙게 드리웠으며 연평도사건과 같이 불과 불이 오가는 치참한 사태도 벌어졌다.

민족의 운명을 두고 온 겨레가 걱정하고 남조선인민들 다수가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는 때에 발생한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은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안중에도 없는 대결광신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개가 짚어도 행렬은 멈추어서지 않는 법이다.

공지에 물린 남조선보수 당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그것은 제명을 재촉하는 진멸에서의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공화국은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력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대담할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동족을 해치는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것이며 그때에는 후회해도 때늦게 될것이다.

우리의 정의의 위엄에 감히 맞서는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수를 면치 못할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원칙이 성명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최석현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에 대한 란 폭한 유린 행위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민가협)가 1월 24일 목요일집회를 가지고 반공화국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민가협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 등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권리를 탄압하게 유린하고 호상평등원칙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공화국은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력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대담할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동족을 해치는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것이며 그때에는 후회해도 때늦게 될것이다.

우리의 정의의 위엄에 감히 맞서는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수를 면치 못할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원칙이 성명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본사기자



미국이 도대체 무엇이기예

지금 온 나라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예 한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어떻게도 모질게 우롱하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칼을 박는가 하는 분노와 적개심이 온 나라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세계가 다 지켜보았다. 제노라 하는 적대국의 우주전문가들도 크게 공한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 무슨 《위협》이라니, 《엄중한 도전》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더우기 《제재결의》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최고의 적대행위이다.

돌이켜보면 이 세상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나라, 모두가 부러울것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만민을 해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었다.

희망찬 미래를 안아오기 위해 홀린 반과 탐은 얼마

나 깃던가.

존엄했던 1990년대 중반기, 남들같으면 엉당초 쓰러져 일어날념조차 못했을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불사신마냥 일어나 싸웠다.

허리띠를 조이고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행복의 매일을 위해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려왔다.

그러던 군대와 인민이 아버지수령님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추모가 밤하늘에 터져오를 때, 현대적인 무장장비들과 무적의 대오가 보 무당당히 지구를 울리며 열 범당광을 치는날 때 대결을 고요하였는가.

력사의 그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엄명하시였다. 그이의 연설에 고무되어 온 나라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밀쳐나섰다.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 길에서 반드시 옳아갈 강성국가의 반모가 현실로 펼쳐지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의 전환적국면을 열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자.

본사기자 박철남

이런 결심안고 맞이한 새해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도 북풍이 터지고 속이 뒤틀리는 일인지 또다시 케케묵은 《제재》보따리를 펼쳐놓으며 력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으니 어찌 참을수 있던 말인가.

아무에게나 물어보라.

최첨단을 자랑하는 인공지구위성을 설계한 과학자도, 하얀 백지우에 우주정복의 꿈을 그리는 유치원어린이도 얼마나 분노에 치를 떠는지.

그들은 모를것이다. 자기의 꿈과 희망, 행복을 유린당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분노가 터질 때 무엇이 폭발하게 될지 가능조차 못할것이다.

이제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국에 의해 국토가 두동강나고 민족이 갈라진지도 70년, 그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제재》고립압살책동,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위험에 신물이 난다.

그 지긋지긋한 《제재》도, 핵무기를 휘두르며 온갖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이라는 나라와도 이제 최후결산을 하자.

이것이 바로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결심이다.

이제 곧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이 세상 모든 악한적국면을 열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자.

본사기자 박철남

미국의 꼭두각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우주조약이 그것이다.

그 조약의 제1조는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 과학적발전수준과 무관하게 각자의 리익과 혜택을 위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를 탐사하고 리용할수 있으며 모든 인류는 우주의 탐사와 리용을 자기의 분야로 삼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늘어나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상정시켜 비난하고 《제재》하라고 한것은 유엔의 존재와 활동의 기초로 되는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 우주조약에 배치되는 위법행위이다.

유엔은 정반대로 유엔회원국의 위성발사를 보장해주는 국제법을 가지고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를 걸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상정론의한것자체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천후에 용납 못할 행위이다.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능력에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고 떠들고있지만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위성발사는 장거리미싸일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저들의 추종국들은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 공화국은 저들과 제도를 달리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것이 미국의 논리이다.

미국의 이 강도적리용

번에 또다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통략당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동용됨으로써 자기 력사에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유린한 치욕과 조선반도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버리는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였다.

공정성을 기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작은 나라들을 회생시켜 큰 나라들의 리익을 도모해주고있는것과 같은 약육강식의 처사는 참모도 놀랄모도 개란할 일이다.

사실들은 국제무대에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허울뿐이고 동용되어온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비법적인 남조선간첩을 은폐하도록 유엔기발을 제공하였으며 미국은 지금도 그 기발을 명분으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

본사기자 주광일

우주촌에 북이 있다

북이 첫 실용위성을 쏘올린 우주촌의 일인이라는것은 자라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현실이다. 공화국에서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제작과 발사는 우주개발경쟁이 활발한 오늘날의 세계적추이에 상응한것이고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국제법과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행사다. 그래서 세계는 북의 위성발사를 놓고 100% 찬성된 조선 위성발사에 성공, 주제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지구우위권에도 조선의 위성이 나타났다고 지구동성으로 놀라와하고 격찬하고있다.

우주기술과 우주정복이 인류의 문명, 민족들의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미치는 몫이 자못 크기때문에 그에 대한사람들의 관심도가 이처럼 비상한것이고 따라서 지난 2011년 한해에만도 118개나 되는 우주기구를 운반로켓트발사로 떠올린줄 안다.

인공위성발사는 특정국가

가 따로없는 보편적, 평등적권리행사여서 그 누구에게는 혼자하고 간섭할 권리가, 누구에게는 허가받고 구속받을 의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 변이 생겼다. 피이하게도 유독 북의 우주개발과 리용권리행사에 대해서만 이상기류가 휩쓸고있는것이다. 북이 위성을 발사했을때부터 달이이상하며 《탄도미사일발사》로, 유엔《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며 반북대결소동을 일으키고 벌린미국과 그에 맹종맹종한 추종세력은 끝끝내 안보리라는 무대를 통해 새로운 《제재결의》를 쏟아냈다.

나는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에만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몇몇 관련국들에서는 커다란 소동까지 일어난다는 환호석동도의 일가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자주와 정의의 지향하는

나 대국들의 간섭과 전횡, 압력과 위협앞에서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유엔《제재결의》로 북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심상치 않은 침해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를 위해 실제적이고 강도높은 국가적중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감히 위성발사를 거들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심히 유린한 외세의 그 어떤 도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의 강경고압대응이라 하겠다.

부인하건대 우주개발과 평화적리용은 그 누구의 독점물로 될수 없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우주정복자들에게 《광명성-3》호 2호기를 쏘

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성공과 운반로켓트들의 보유를 강성 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보시는 그분의 과학기술중시의 뜻과 공화국의 우주개발정책과 국가발전전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본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100개, 1000개라도 개발발사하겠다는것이 북의 결심이고 의지가 아니겠는가.

북의 우주개발은 신성불가침이며 지구촌에서 우주촌으로의 정복투쟁은 더욱 야심차고 파격히 이루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한다.

재미등도 김명철

이번에 우리의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위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성과 운반로켓트들의 보유를 강성 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보시는 그분의 과학기술중시의 뜻과 공화국의 우주개발정책과 국가발전전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본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100개, 1000개라도 개발발사하겠다는것이 북의 결심이고 의지가 아니겠는가.

북의 우주개발은 신성불가침이며 지구촌에서 우주촌으로의 정복투쟁은 더욱 야심차고 파격히 이루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한다.

재미등도 김명철

이런데 우리의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위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성과 운반로켓트들의 보유를 강성 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보시는 그분의 과학기술중시의 뜻과 공화국의 우주개발정책과 국가발전전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본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100개, 1000개라도 개발발사하겠다는것이 북의 결심이고 의지가 아니겠는가.

북의 우주개발은 신성불가침이며 지구촌에서 우주촌으로의 정복투쟁은 더욱 야심차고 파격히 이루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한다.

재미등도 김명철

우저대는것이야말로 날강도적론리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끝에 닿아있다.

오늘 공화국은 핵이든 핵, 위성이든 위성 그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앞으로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걸고 우리의 위성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계속 쏘아올릴것이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부교수 박철민

더 많은 위성을 우주에

포기할수 없는 자주적권리를 위해

나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가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시정책, 압살정책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재결의》를 주도한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하게 적대시압살정책에 매달려왔다. 자국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눈을 어느 가시처럼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기 위해 핵무기로도 위협해보고 경제봉쇄정책도 집요하게 써왔으며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심리모략전도 악랄하게 벌려왔다.

그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국력이 강화되는것을 달가워할라가 없다. 《전략적인내》를 떠들면서 우리를 목조르기하던 미국이 선군조선의 하늘로 위성이 치솟아오르고 세계10대 초강대국이 출현하였다는 외신보도들이 와들왓 놀라 《제재결의》라는것을 부랴부랴 조작해냈었다.

인공위성을 미국이 쏘고 로씨야가 쏘며 일본이 쏘아도 일없이 유독 조선이 쏘면 안된다라는것이 있다. 이것이 야말로 강도의 논리이고 이

중기준의 구치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

이것을 용납하고 《제재결의》를 받아들인다면 조선은 영영 위성을 자기 손으로 쏘아올릴수 없는 불행한 나라로 될것이고 우주개발과 경제발전의 넓은 길은 가로막히게 될것이다. 과연 이것을 감수할수 있는가.

세상에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평등하다. 미국도 발사하는 운반로켓트를 조선이 발사하지 말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공위성을 우주계도에 올린

운반로켓트 《은하-3》호는 조선의 존엄이고 궁지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이다.

실사 범포적인 유엔《결의》로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고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다 해도 우리는 자기의 피와 생명인 우리의 존엄, 자주적인 권리를 절대로 포기할수 없으며 포기하지도 않을것이다.

나는 공화국의 품에서 자라나고 공부하는 청년대학생의 한사람으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존엄한 결사전, 정의의 반미대결전에 나의 온넋과 피를 강그리 바쳐나갈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철원

요즘 미국놈들이 못되게 노는것을 보니 나의 남편인작가 석윤기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체험한 사실을 쓴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 떠오른다.

처음에는 포로된 주제 저들의 《강대성》에 대하여 허장성세하던 미공군대위가 호송되어가는 자동차안에서 받아안은 총격이 소설에 담겨져있다.

적들의 맹공격속에서 치명상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며 휘파람을 불면서 차를 몰아간 나이런 병사. 전투임무를 완수하고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 병사를 보면서 미군대위는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는것을 자인하는 두번째 대답을 하게 된다.

미제의 취약성과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포로된 미

스르가 찾았던 교훈을 망각한 미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전쟁전기간 미국이 어떻게 멸망의 구렁

60년전과 오늘을 보며

군비행사와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체현한 숭렬이 보르르한 나이런 병사가 등장하는 이 소설은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오늘의 정세하에서 나는 60년전 이 소설에서 스

렁이에 깊이 빠져들어가는가를 똑똑히 본 전쟁로병이다.

오늘의 조선은 60년전 수류탄과 파발총으로 항공포함을 가진 미국과 맞섰던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우리 조선은 존엄높은 핵

력사적인 북남선언이 리행되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통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로써 서해해상은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북침전쟁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되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동족이 벌리는 축제들을 비방중상하였는가 하면 민족화해와 단합의 옥동자도 불러우며 10년간이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전면중단시키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배왕까지 차단시킨것 등 리명박당국이 북남관계를 파괴적으로 몰아간 죄악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최근에는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이 반복된 5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집권초기부터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 리명박《정권》이 종말을 고향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리명박《정권》의 출현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언제 한번 편안한 날이 없었으며 북과 남사이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군사적충돌만이 반복되었다.

문제는 리명박의 집권 5년간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성과라고 할만 한것이 표물만큼도 없었고 있다면 6.15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후퇴시켜 동족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만을 조성한것뿐이다.

하더면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 리명박의 지나온 행적을 돌이켜보자.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이 체질화되어있는 리명박은 청와대입장권을 거머쥐기 바쁘게 반북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

책》으로 내들고 북남관계를 《리명의 자대》가 아니라 《실용의 자대》로 대할것이라고 떠들면서 이미 리행중인 민족사적인 북남합의들을 짓통개버리기 시작하였다.

리명박《정권》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고 민족의 공리공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그 무슨 《국민적공감대》와 《제정부담》등을 구실로 완전무효화해버렸다. 북남합의들을 《우선할것》, 《나중에 할것》, 《하지 않을것》이라고 갈라놓고 그 모든것을 계단식 등으로 없애버림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관계는 물거품이 되고 이천시대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갔다.

리명박《정권》하에서 벌어진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합선침몰사건으로 말하면 이미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것처럼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불순한 목적

으로 조작한 반공화국대결모략극이다.

합선침몰사건을 조작한 이후 리명박의 《실용정권》이 한 일이란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반공화국핵전쟁연습하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까지 끌어들이 동족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인것뿐이다.

《천안》호사건이 외세와 공조하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압박을 실행하기 위해 무어면 1차 도발이란 연평도포격전은 북침도 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계획적인 2차 도발이었다.

연평도포격행위가 《천안》호사건이 특대형모략극으로 락인되어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받게 되자 그 죄과를 무마해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정계로 몰아가기 위해 무모한 선봉질서로 공화국에 직접적인 군사적대결을 강요해나선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적충돌이 해상을 벗어나 폭지에까지 확대된 연평도포격전을 두고 남침민심이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이니, 《핵위협》이니 하면서 분주량을 피우며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를 조작하도록 하는데 제일 악질적으로 높아졌다. 그런가하면 유엔《제재결의》가 발표되자 남먼저 《환영한다》니, 《제재결의준수》니 하고 악담질을 하며 공화국에 대한 《고강도제재》를 부르짖었다.

참으로 리명박《정권》의 집권기간은 그 시작부터 림종을 앞에 둔 마지막시기까지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된 범죄의 5년이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본사기자 리광성

범죄자들에게 《훈장》이라니

남조선에서 지난 1월 29일 또 한차례의 막간극이 펼쳐졌다.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리명박이 그레도 집권처럼 《국무》회의에 나타나 자기 측근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놀음을 벌린것이다. 그것도 1월 29일을 맞추어서 인지 129명에게 주었다고 한다.

큰 도적이 작은 도적에게 준 표창이하 하겠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번에 《훈장》을 받은자들로 말한다면 《실용정권》 5년동안에 리명박의 수족이 되어 남조선정계를 파괴적으로 몰아넣고 파쇼독재체제구축과 동족대결정착수행에 앞장선 인물들이었다.

우선 이번이 제일 큰 훈장을 받은 강만수 산은금융그룹회장(리명박《정부》초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명박의 최측근 경제정책참모로서 부자간계와 교환정책적으로 남조선정계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장본인중의 한명이다. 김인규 전 《KBS》사장 역시 《천안》호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을 비롯하여 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을 대변하는 여우남말수로 제1선에서 활약하면서 리명박《정권》의 파쇼독재를 미화하고 언론

길들이기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자이며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 안경률은 리명박의 측근으로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활약한 인물이다. 이렇게 면면히 따져놓고보면 이번에 《훈장》을 받은자들의 《공로》란 다름아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파란시킨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 표창놀음을 두고 《보은성 선물》이라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리명박이 저러준 《훈장》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한 그 어떤 대가의 표시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반인민적죄과를 알려주는 폐폭에 불과하다.

리명박이 지난 기간 자기의 반인민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하라 뛰여나던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훈장》이나 걸어주며 호숫해하고 또 그 수하종제들은 감지못지해할지 몰라도 민생은 《실용정권》 5년의 고통과 불행을 더듬어 보며 몹시리치고있다. 리명박과 함께 범죄의 표폭을 받은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서 희

지켜보았댜자...

임기말을 눈앞에 둔 남조선보수당국이 더욱더 기를 쓰며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29일 보수당국이 발표한 이른바 《북정세지수》 개발완료라는것이 바로 그렇다.

그 무슨 《안정성지수》, 《체제전환지수》, 《위기지수》로 나누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공화국의 사회전반실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측정한다는것인데 참으로 다소 소로운 노릇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세계를 휩쓴 경제괴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에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특히 성공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는 높은 경지에 오른 공화국의 첨단과학기술,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민족사적특대사변이었다. 지금도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초강경대응으로 맞서 자기가 선택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정세지수》니 뭐니 하는것은 공화국을 압살하지 못해 안달이 난 《체제대결》광신자들의 불순한 기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

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의 령대 보수《정권》들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떠들던 《유신》독재자는 물론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린 《5. 6공》군부독재세력들과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완전적폐상태에 몰아넣은 《문민》독재집단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현 보수당국처럼 그 무슨 《지수측정》까지 운운하며 《체제대결》에 광분해은 대결광신자는 일찌기 없었다.

집권 첫날부터 《비핵, 개방, 3 000》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내흔들며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등을 구미고 공화국의 《금번사태》를 노린 북침전쟁연습들을 해마다 벌려놓은것도, 《통일항아리》니, 《국민기금조성》이니 하는것으로 민족의 통일념원을 우롱한자들도 다름아닌 리명박대당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만치나 어리석은 일이다.

《북정세지수》라는것을 설정하고 지켜보았댜 공화국은 오히려 더 잘될것이고 선군승리의 환호성만이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김철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특별사면》 놀음을 비난

리명박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범죄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 놀음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1월 30일 남조선 《KBS》방송은 이 《특별사면》 놀음에 대해 《이것은 사면이 아니라 집단탈옥》이라고 폭로하였다.

방송은 리명박이 부정부패범죄로 범칙의 심판을 받은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과 전 《국회》의장 박희태를 비롯한 측근들을 《특별사면》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립각했다니,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니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허탈감이 더욱 느껴질뿐이라고 방송은 개탄하였다.

방송은 리명박이 자기의 권한을 부정부패를 저지른 측근들에게 사용한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임기중 《특별사면》은 없을것이라고 하던 리명박이 실형이 확정된지 두달도 안되어서야 형장의 절반도 안우지 않은 측근들을 집단적으로 탈옥시켰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각계에서 항의기운이 높아지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죄악에 죄악을 덧씌우고 범죄행위

지난 1월 29일 리명박이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특별사면》이라는것을 단행하였다.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서 최악에 최악을 덧쌓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들을 보면 지난 시기 대표적인 권력형부정부패로 감옥신세를 지고있는 리명박의 측근인 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을 놓고보더라도 그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경선》때 부동산개발업자로부러 거액의 돈을 받아 리명박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자이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나라당》 돈봉투사건의 주역으로서 리명박의 심복중의 심복이며 친신일 세종나모러행 회장 역시 리명박의 《대표적인 후원자》, 《50선지》로 불리우던자이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김효제도 세상이 다 아는 리명박의 최측근인물이다.

이들은 리명박의 집권기간 권력을 등지고 거액의 돈을 받아먹거나 특대형부정부패범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감옥신세를 지고있다.

사실 이들의 죄행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도 부족할만큼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불과 2, 3년밖에 안되는 형을 언도받았으며 그나마도 이번 《특별사면》의 명목으로 풀려나게 될것이다.

결국 이번 《특별사면》 놀음은 리명박이 자기의 권력을 악용하여 제 측근인물들의 죄행을 전부 면제시켜준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는것

이다.

리명박은 《사회적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서청원 전 미대회담당대 대표와 같은 정치인들과 중소기업가들, 일부 룡산철거민구속자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슬쩍 끼워넣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난 민심을 달래고 퇴임후 안전도 보장보겠다는것인데 참으로 교활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의 령대 《대통령》들치고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지만 이처럼 첩면피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특별사면》 놀음은 일찌기 없었다.

집권전기간 반인민적정치로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고도 부추켜먹기 마치 막날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못된 짓만 플라하는 리명박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대형범죄자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이 분개하고있고 법치를 무너뜨리는것》, 《천주사건》, 《공정권한을 개인의 리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도 리명박은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이라느니, 《권한람용이 아니》라느니, 《박 당선인즉시 이해해줄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할 법이다.

제이무리 발버둥쳐도 리명박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날은 멀지않았다.

명금룡